

# 해남군, 간척지 울무재배로 벼 대체작목 육성

### 마산면 간척지 일원 3ha규모...기계이앙 연사회 개최 산막영농조합법인, 올해 16ha 면적까지 울무재배 확대

해남군이 밭작목인 울무의 간척지 재배를 위한 시범포를 운영한다. 군은 마산면 간척지 일원에 3ha규모의 울무재배 시범포를 운영하기로 하고, 지난 15일 2023년 간척지 울무육묘 기계이앙 연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범포는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간척지 울무 재배에 성공한 산막영농조합법인 권길환 대표와 군 농업기술센터가 협업하여 재배기술을 정립,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 운영된다. 권길환 대표는 침수와 염분 피해 등으로 벼 외에 작물 재배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간척지에서 1주일에 3-4번 물 길러대기를 통해 염도를 낮추는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울무 재배에 성공한 바 있다.

지난해부터는 울무 모를 벼처럼 육묘해 이식기로 옮겨심은 결과 뿌리 활착이 좋고 생육이 빨라 밭재배의 80% 수준까지 수확량이 늘어난 것도 확인하였다. 산막영농조합법인에서는 올해 16ha 면적까지 울무재배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연사회에서는 울무 모의 기계이앙을 시연하고, 간척지 재배시 재배기술에 대한 사례발표가 이어져 농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울무는 항암효과를 물론 시력 보호, 혈당 감소, 노화예방, 다이어트 효능 등이 뛰어난 건강식품으로 각광받으면서 판로 전망이 밝은 작물로 이번 간척지 재배를 통해 벼 대체작목로서의 가능성도 인정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시범포 운영을 통해 간척지에 누구나 쉽게 울무를 재배할 수 있도록 토양관



리와 병해충 방제에 표준화된 재배기술을 확립하고 기술보급에도 앞장 설 계획"이라며 "벼 적정생산을 위한 타작물 재배 확대가 시급한 가운데 선도 경영체의 우수모델을 바탕으로 농가 확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 완도 청년들, 지역에 활력 불어 넣기 위해 뭉쳤다

완도군은 '전남형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 간담회를 갖고 본격적인 청년 공동체 활동 지원에 나섰다. '전남형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청년 공동체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군에서는 7개 팀(37명)이 선정되어 6월부터 11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선정된 7개 청년 공동체는 ▲완도군만의 이모티콘 개발 및 그림책, 열쇠고리 등 소품 제작 홍보 ▲우드버닝 및 업사이클링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색채 심리 상담 프로그램 운영 ▲국악 양성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폐현수막, 폐의류 재활용 장바구니, 음료수 캐리어 등 제작 ▲전북 활용 음식 연구 등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9일 열린 간담회에서는 전남형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안내와 각 청년 공동체의 활동 방향 등을 공유했으며, 간담회를 시작으로 군은 지속적으로 청년 공동체 간의 소통·교류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완도=기동취재본부



### 장흥군 "지역 이끌어 갈 여성리더 육성한다" 제7기 여성리더대학 개강식... "여성 리더, 사회 각 분야로 진출하는 기회 만들 것"

장흥군은 19일 군민회관에서 '제7기 장흥군 여성리더대학 개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흥군 여성리더대학은 양성평등 사회 조성 및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와 사회참여를 독려하고 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여성리더를 발굴·육성하는 과정이다. 이번 여성리더대학은 7개 과정으로 총 11회기 진행하며, 과정당 40여명 수강생이 참가한다. 장흥군은 2017년부터 총 6기 운영을 통해 254명의 수료자를 배출했다. 올해 7기 여성리더대학은 이전과는 다르게 관심 분야를 선택 모집했다. 전문적인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피플앤스피치(대표 한수정)에서 위탁 운영한다.

교육은 개강일부터 7월 17일까지 주 2-3회, 총 11회 과정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스피치분야 ▲경제분야 ▲기본소양 ▲법률분야 ▲셀프브랜딩 ▲사회분야 등 각 분야 최고 전문가를 초빙해 운영된다. 군은 여성리더대학 참가자들이 성평등 관련 위원회, 각종 위원회 위촉직 여성위원으로 연계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할 방침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여성 역량강화가 일회성 교육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리더로서의 자질과 전문성을 갖추어 사회 각 분야로 진출하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기자

### 강진읍 얼굴, 영랑로 바뀐다...지역 명소 변신 올 가을 '강진읍 美프로젝트'로 화단, 조형물, 간이쉼터 조성

강진군은 '강진읍 美프로젝트'의 시범사업 대상으로 영랑로 일대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올해 가을까지 기존 목재 화분이 있는 영랑로에 야간조명을 포함한 성벽 화단을 배치하고 터미널 부근 조형물 리모델링 해 간이쉼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강진읍 美프로젝트'는 강진읍 시가지 일대 도시미관 저해 요소를 찾아 개선해, 아름답고 쾌적한 강진읍을 만드는 경관 개선 사업이다.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영랑로는 강진읍의 중심지로, 탐진로, 중앙로 등 주요 도로와 연결돼 도심의 중앙 축 역할을 하며 유동 인구가 많다. 특히, 강진버스터미널이 자리해 있어 관광객에게 강진의 첫인상을 남기는 중요한 공간이다. 앞으로 영랑로 일대는 ▲터미널 입구 옆 기존 조형물 리모델링 ▲메가커피 앞 교통섬 내 간이쉼터 조성 ▲영랑로 보도 옆 배치된 기존 화분 교체 후 성벽 화단 설치 ▲택시 승강장 옆 성벽 화단 설치 등 총 4개



지 사업이 추진된다. 군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존 화분이 위치한 구간만 실시할 예정이고 터미널 입구 부근에 조성될 조형물 및 성벽 화단 또한 교통 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높이와 면적으로 설치해, 안전사고와 군민 불편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사업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7월 말까지 완료하고, 전라남도 계약 심사 등 차후 절차를 이행 후 올 가을, 시행될 예정이다. 강진원 군수는 "강진읍의 중심지인 강진읍을 깨끗하고 아름다운 경관으로 조성해, 머물고 싶은 관광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강진읍 美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관광객 5만 명 유치의 시작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환경과 군민들의 미소"라고 강조했다. 강진=김영일기자



### 진도군, 경찰공무원 알코올 중독 예방·생명사랑 교육

진도군이 최근 진도경찰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알코올중독 예방과 생명사랑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세한대학교 노인숙 교수를 초청, ▲음주현황 ▲음주폐해 ▲절주실천 등 알코올 중독을 예방하고 자살 신호를 조기에 인지해 자살을 막는 교육으로 진행됐다. 알코올 중독 예방 교육을 통해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경각심을 갖고 절주방법과 자살을 암시하는 언어, 행동, 상황적 신호를 미리 알아차려 적극 구조하는 방법 등을 강조했다. 진도=조상용기자

##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전라남도